



5면

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 교육공간 자리매김

# 전주매일

2023년 6월 8일 목요일 (음 4월 20일)

제327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도내 대학생들도 나섰다

### 전북대 진수당서 '이차전지산업 포럼·결의대회' 개최 김 지사, 결의대회 앞서 지역 발전 앞장서준 학생들 격려

국가첨단전략산업인 이차전지 특화단지 새만금 유치를 위해 미래 세대인 도내 대학생들이 발벗고 나섰다.

7일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이 참여한 가운데 전북도내 대학생 300여 명이 이차전지 특화단지 포럼 및 유치 결의대회를 가졌다. (관련기사 4면)

행사는 전북도 이차전지 산업 육성 방향의 이해를 위한 전북테크노파크 이광현 이차전지소재융합팀장의 발표와 질의응답, 이차전지 특화단지 홍보 영상 상영, 특화단지 유치 결의를 다지는 세레모니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300여명의 대학생들은 전북의 미래 동력산업인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도내 대학생들이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서겠다고 결의했다.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은 "도내 대학생들의 연구역량을 모아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 혁신허브를 구축하고, 초광역 인재양성 기반을 구축해 전북도의 미래를 위한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새만금은 투자진 흥지구 지정 등 인센티브, RE100 실현의 최적지로 최근 3년간 23개사 7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어지는 등 국내외 소재 공급 전진기지로서 최적의 입지를 가지고 있다"며, "도는 선도가격과 함께 초격차 기술을 준비중에 있으며, 앞으로는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북도내 대학생과 청년들에게 달려 있는 만큼 전북도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모든 역량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도지사는 결의대회에 앞서 전북대학교와 우석대학교 학생 18명과

오찬을 함께하며 전북 발전에 앞장서준 대학생들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 미래 산업 발전에 앞장서준 대학생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차전지 산업 고도화로 1만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되며, 학생들이 졸업후에도 전북을 떠나지 않고 도내에서 꿈과 희망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도가 이차전지 산업의 기틀을 다져놓겠다"며, "학생들도 도전경성의 자세로 전북 발전을 위해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원광대학교 송산기념관에서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대학생과 교직원들의 결의대회가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신규 지정 유치 공모에는 전북, 포항, 울산, 오창 상주 등 5개 지방자치단체들이 뛰어들었으며, 지난달 3일 '전북 이차전지 특별위원회'의 출범과 더불어 지난 1일에는 국회에서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500만 전북인 결의대회'가 열려 뜨거운 관심을 불러모았다. /김재훈 기자



**그린수소 산업육성·활용 협약** 7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U.AE(오랍에미리트) 알 피탄 그룹(AL FATTAN GROUP)의 모하메드 라시드 무사바 알레미디회장, 알 피탄 엘렉트릭 UVC 그린에너지의 칼리드 모하메드 라시드 무사바 알레미디회장, (주)엘텍UVC의 공동대표인 김세호 대표, 이지영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그린수소 산업육성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 '백두부터 한라까지'

### 도교육청 '백두대간 사진전' 20일까지 평화공존 의미 되새기고자 전시회 마련 로저 앨런 셰퍼드 사진들로 총 52점 선봬



백두산·개마고원·금강산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평화공존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자 '백두대간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오는 20일까지 도교육청 창조나래 2~3층에 전시되는 작품들은 뉴질랜드 국적의 로저 앨런 셰퍼드(사진) 작가가 남북한 백두대간을 중주하며 찍은 사진들이다.

이에 따르면 로저 앨런 셰퍼드는 지리산부터 백두산까지 총길이 1,400km에 이르는 남북한 백두대간을 중주한 최초이자 유일한 외국인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구례에 거주하며 외국인 대상 산악가이드 활동 및 백두대간

을 소개하는 사진작가 및 저술가인 동시에, MBC 다큐멘터리 및 남북의 참 등 다수의 방송에 출연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그가 남북의 백두대간을 중주하면서 촬영한 백두산·개마고원·금강산 등 북한·덕유산 등 남한의 산 사진 25점과 지리산·백록담 등 총 52점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오는 20일에는 'Heart to Heart' 평화와 공존을 꿈꾸는 희망하는 평화·공존 교육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면서 "학생들에게 평화공존 역할을 길러주는 세계시민교육 활성화와 더불어 평화의 미래,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함께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품질혁신 문화 확산 도모'

### 전북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전북도와 한국표준협회 전북지역본부는 7일 전주상공회의소에서 품질경영 혁신을 위한 2023년 전북 품질분임조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 품질분임조 경진대회'는 기업 구성원들의 우수한 품질개선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품질혁신 문화를 확산하고자 지난 1981년부터 시작했다. 이번 대회에는 10개 부문, 11개 사업장, 15개 분임조의 규모로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이날 대회는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으로 인해 대면 심사 및 유관 중으로 진행됐다.

올해 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품질경영유공자 시상식에서는 삼양화인테크 놀로지(주) 김경석 팀장, 현대자동차(주) 전주공장 김승국 매니저, LS엔트론(주) 김영성 조장 (주)부산 정재관 과장 등 총 4명의 유공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과 전북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아울러 이날 현장에서 분임조별 혁신 사례발표도 진행됐다.

심사를 거쳐 대상에는 LS엔트론(주) '넷플' 팀이 선정됐다. 그 밖에 최우수상에 13팀, 우수상 1팀이 선정됐다.

대상 및 최우수상을 수상한 분임조는 오는 8월말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리는 제49회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김재훈 기자

## "잼버리 침수등 안전대책 국비 예산 투입을"

### 김정수 도의원, 대정부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슈퍼엘니노 인해 8월 평년보다 많은 비 예상"

전북도의회 김정수 의원(익산2·운영위원장)은 7일 제401회 정례회에서 '국제행사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안전대책 관련 국비 예산 투입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침수 예방시설 등은 도가 부담하는 기반시설 외적인 사항으로 국가행사로 추진되는 만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성공과 세계 청소년들의 안전 등을 고려, 시급히 국비를 지원함으로써 침수·폭염 피해 예방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리는 기간인 8월은 평년보다 많은 비가 예보되어 집중 호우 시 배수지역에 따른 침수가 예상된다"고 그 근거를 제시했다.

한편 세계잼버리의 성공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2월 18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지원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해 왔으며 그 성과로 지난달 24일 현재 152개국 4만2,000여명이 참가등록을 함으로써 세계잼버리 역대 최대 규모의 행사가 예상된다.

따라서 아열대 및 주요 활동지역을 중심으로 침수·폭염 피해 예방 대책 등 적극적인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번 건의안은 오는 15일 전주에서 열리는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안전으로 상정·협의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IMSIL-GUN  
임실군

# 천만 관광 임실시대를 열어갑니다